

단색화의 예술

참여작가 김기린, 정상화, 정창섭, 하종현, 이우환, 박서보, 윤형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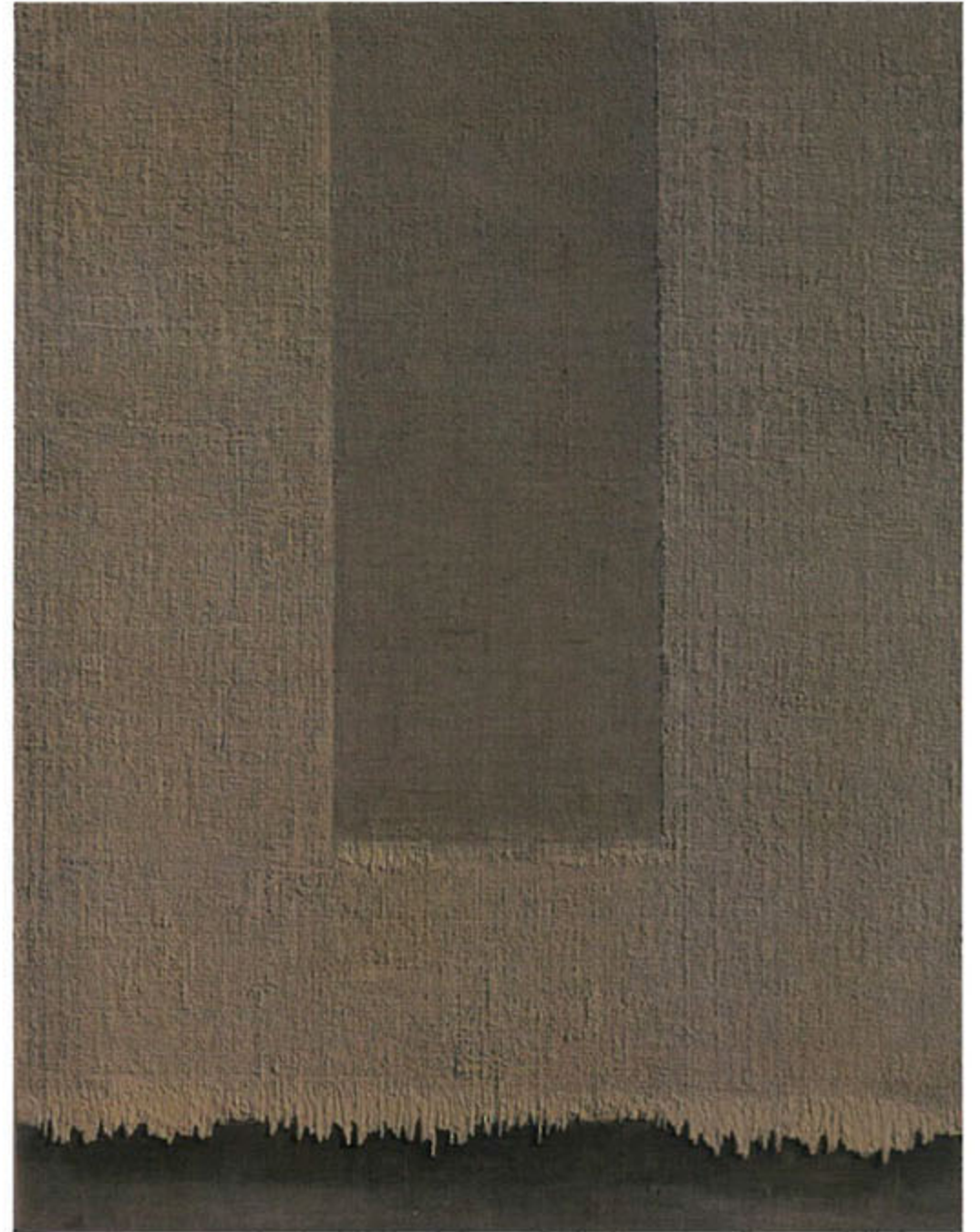
2014. 8. 28 ▶ 2014. 10. 19

국제갤러리 |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4 T. 02-735-8449

국제갤러리는 한국미술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 받고 있는 단색화와 이 흐름을 이끌었던 거장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모더니즘의 맥락에서 단색화를 재조명하는 <단색화의 예술>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1970년대 단색화 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김기린, 박서보, 윤형근, 이우환, 정상화, 정창섭, 하종현 등 일곱 작가의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1970-80년대에 제작된 초기 단색화를 중심으로 한국 단색화 운동의 생생한 면모를 보여주고자 한다. 특히 한국 단색화의 요체로 손꼽히는 정신성, 촉각성, 행위성이 일곱 작가의 작품 속에 고르게 스며 있고, 이들이 하나의 장 안에서 서로 겹치거나 스며드는 가운데 궁극의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가령, 촉각성은 마치 선(禪)을 수행하듯 행위의 '반복'을 통해 중국에는 고도의 정신성을 획득한다. 과정으로서의 단색화의 제작 방식은 물성과 주제, 화폭과 자아의 합일을 이루는 일종의 '수행(performance)'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우환의 반복되는 선과 점의 행렬, 박서보의 반복되는 선묘, 정상화의 반복되는 물감의 뜯어내기와 메우기, 윤형근의 반복되는 넓은 색역(色域)의 중첩, 정창섭의 반복되는 한지의 겹침, 하종현의 반복되는 배압(背壓)의 행위, 김기린의 반복되는 물감의 분무(噴霧) 행위 등 '반복적 행위'는 이들의 작품 속에 고르게 녹아 있다.

이번 국제갤러리 전시 <단색화의 예술>은 서구사회를 모델로 성장 제일주의를 구가했던 당대 사회상과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순수한 예술적 혁신을 위해 전위정신으로 충일했던 단색화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재조명한다. 이를 통해 동시대 해외 미술의 현장 속에 적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단색화 운동의 모습은 물론, 세계 미술사의 맥락 속에서 한국 단색화의 가치와 의미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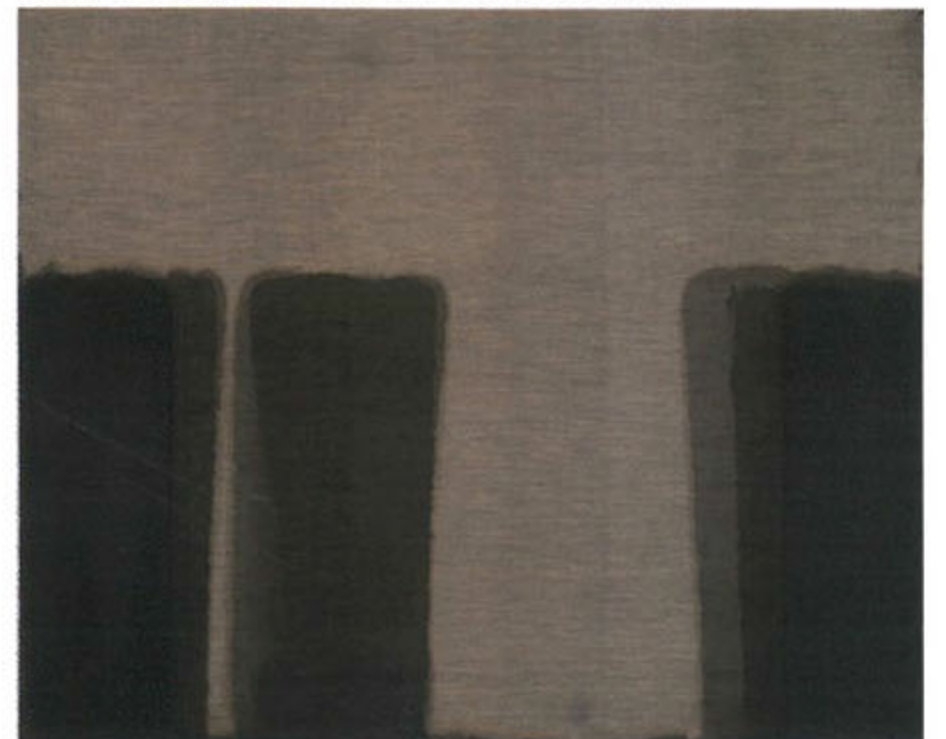
하종현 Conjunction 78-4



이우환, From Poin



박서보, Ecriture(描法)No. 41-81 | 182cm x 227cm, pencil and oil on hemp cloth,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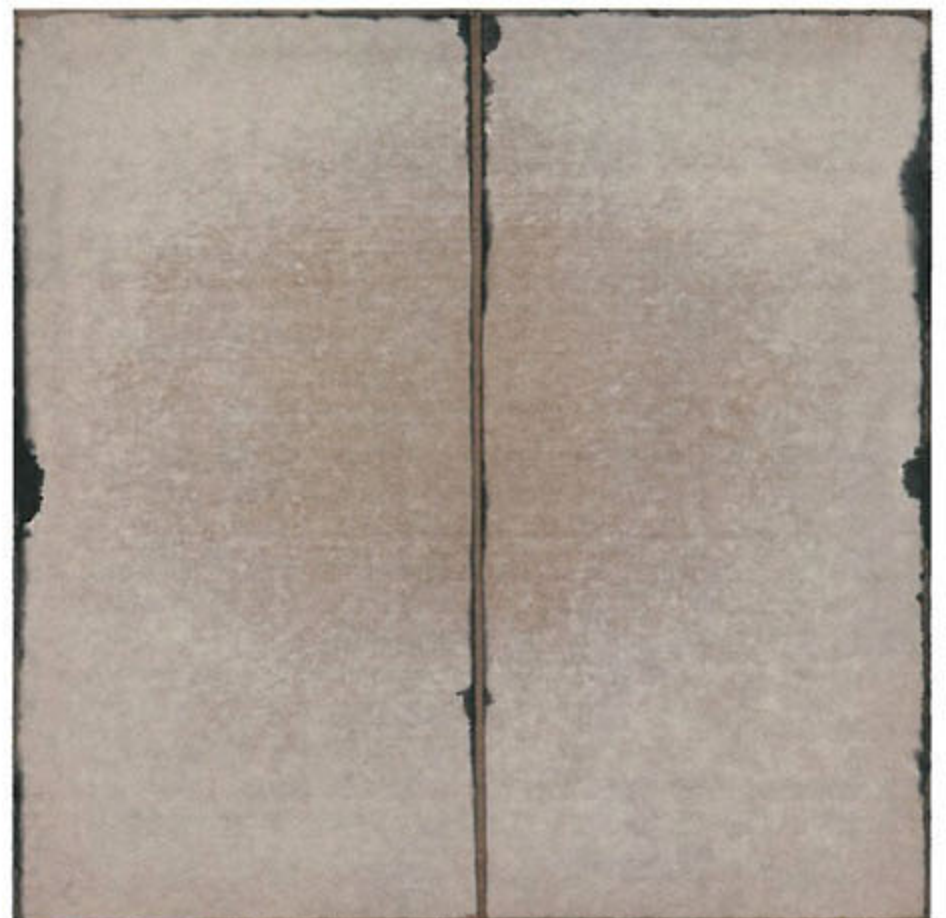
윤형근, Burnt Umber and Ultramarine Blue | 1977



정상화, Work 73-7



김기린, Visible Invisible | 1988



정창섭 | Return One 80B